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우성



‘강 시장도 인재(人災) 인정한 수돗물 오염사고’, ‘광주시가 하는 일 매년 왜 이리나’, ‘광주시장 공기업 측근인사 막무가내’, ‘강은대호 공신력 날개없는 추락 어디까지’, ‘솔렌시스 의혹, 광주시 철저 규명’, ‘광주시 하안소 캠페인 아는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의 실정을 지적한 각종 언론 매체의 표제들이다. 표제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주시정의 잘못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광주시 한미합작법인 부실, 감사 결과 650억 달러 날릴 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때마다 광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관계자를 질책하며 대책을 촉구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시장

급기가 최근 용연정수장 수돗물 오염사고가 터지면서 광주시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총인사실 버리, 산하기관 측근인사 심기에 이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수돗물 오염사고까지 터지는 등 광주시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선5기 시정구호를 ‘행복한 창조도시’로 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로 공신력이 추락하면서 민선5기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구호처럼 행복을 느끼는 시민은 거의 없다. ‘벌써 몇 번째가야, 저러다 임기나 채울까’ 하는 시큰둥한 반응들 뿐이다.

광주, 과연 ‘행복한 창조도시’인가

지난 12일 발생한 용연정수장 수돗물 오염사고는 인재 중의 인재다. 약품 과다 투입으로 80만 명의 수용가에 10시간이 넘도록 기준 초과 수돗물이 공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매뉴얼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상수도본부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은 어떻게 해소하고 수억 원의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사고 하루전 ‘광주 수돗물 생산기술 전국 최고 입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시의 ‘정수처리 신기술’이 환경부 공모에서 대상

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불과 하루만에 사고가 터졌으니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총인사실시업 일할비리도 시가 불신을 자초한 일이다.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 업체 관계자 등 사법처리된 인사만 31명에 이른다. 공무원과 교수 등 13명은 업체 관계자 15명으로부터 기본설계 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4000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일부는 해외여행과 골프 접대에 거액의 사품권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가. 더욱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불법추적특도 장

리(약 70억3400만 원)를 손실로 판정, G-CIC 대표에 대한 사법 조치 요구와 함께 광주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시는 좀 더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열세가 날아갈 판에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시민 사랑 진정성 전제돼야

광주환경시설공단과 도시철도공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측근인사 심기로 반목을 샀다. 사전 내정 인사에 항의해 임원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하고 후보자가 들러리에 반발, 면접에 불참하기도 했다.

두 공기업 임원으로 보름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들이 그대로 임명돼 사실임을 입증했다. 시민단체들이 사조직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조직에 주는 상치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 것도 이런 이유다.

강 시장은 광주시의 수장이다. 한때 대통령을 꿈꾸며 ‘빛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려 했던 정치인으로서 국가운영 구상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시민들이 느끼야 하는 것이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꿈꾸던 시절의 큰 구상과 철학으로 공평무사한 시장을 구현할 때 시민들도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강 시장의 시민사랑에 대한 진정성이 아쉬운 요즘이다.

〈논설위원〉wskim@kwangju.co.kr

시장 측근이 지시한 것이라니...

이뿐만이 아니다. 강 시장이 처적으로 내세웠던 투자유치까지 말썽이 되고 있다. 세계 최첨단 미디어 제작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시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을 세운 뒤 미국의 K2와 한미합작법인을 설립했다. GCIC는 영상을 3D로 변환하는 ‘점단기술력’ 도입과 마케팅을 위해 K2측과 지난해 총 1110만 달러에 계약. 그동안 650만 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투자한 650만 달

은편칼럼



송민석

5월 가정의 달이다 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일까? 기회만 있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이다. 그럴수록 우려가 앞선다.

교육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입시에 대한 열기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 교육열의 알파고,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의 실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학입시가 과열되는 근본 원인은 대학 졸업장이 더 높은 임금과 지위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특정 소수 명문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사회적 성공이 보장될 것

교육 강국의 지름길

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가운데 좋은 직장도 직업의 세계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누가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느냐?” 하는 입시제도에에만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 대학에 들어가 자녀가 어떻게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의 고민은 뒷전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직업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어릴 적부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과외를 뱅뱅 돌리는 젊은 부모들을 본다. “피카소와 모차르트가 될 수 있는 아이조차 죄다 수험경시대화에 내보내는 경쟁구조로는 세계와 겨룰 수 없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일류대학 진학 여부가 자식농사의 성과로 인식되는 답답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부업을 해서라도 자식 과외를 시키려는 부모를 나무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이 엄마의 성

적이 되는 현실에서 ‘맹모형(孟母型) 이မ်’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최저 출신율로 국내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 조기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때문이다.

몇 년 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학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서 축구장으로, 피아노 교습소로 태워다 주고 숙제를 돌봐주느라 매일 정신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에서의 자식농사를 ‘결실점이 보이지 않는 절인 3중 경계’에 비유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는 대졸자가 아니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지원서도 낼 수 없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약소환의 고리가 너도나도 대학으로 내몰고 있음을 본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학벌주의, 지역 편중, 특정학교 편중의 탓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은 물론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박향

국가 경제가 수출과 내수경제의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략 1억 명 안팎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인구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 인구마저 불과 5000만 명의 초입에서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하면 경제의 윤희유역 할을 하게 될 소비와 노동력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재가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민·관이 합동으로 출산양육에 적합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남녀

다문화 가정, 우리 문화의 폭을 넓혀줍니다

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이 다양한 가족제도가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결혼이 늘어나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세에서 34세까지 남녀 성비가 108 : 100 명으로 모든 성인 남녀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100명당 8~9명의 남성이 국내에서 짝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다수가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실에서 남성들의 결혼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국외에서 배우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고는 아직도 단일민족이라는 국수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부색이나 언어의 다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다름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 때문에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녹아들지를 못하고 있다.

역사서를 보면 예로부터 우리는 결코 배타적인 민족이 아니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시종 20여 명과 함께 도래하자 수로왕은 그를 왕후로 삼고 가락국을 통치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이들의 후예인 김해김씨나 김해(양천)허씨가 전 국민의 9%에 해당하는 450여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니 국제결혼치고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하겠다.

고려 시대에도 활발한 국제교류만큼 귀화인도 많았고 이에 대한 사성(賜姓)도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가 화산이씨의 시조가 된 안남인(지금의 베트남) 이용상이다. 13세기 초 안남이 진왕왕조로 교체되면서 이씨왕조의 왕족인 이용상은 망명길에 올랐다가 고려 고종 13년(1226년) 황해도 용진에 도착하여 자리 잡았는데 오늘날 그 후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면 옛 왕족의 후손들이라며 대단한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

조선 초에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공을 세운 여진인 ‘동두란’이 이지만(李之蘭)이라는 성명을 받아 청해이씨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왜장 사야가(沙也可)가 당시 일본보다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는 조선에 귀화하고 싶다고 해서 선조로부터 김충선이란 성명과 김해를 본관으로 받았는데 오늘날 그의 후손들이 대구시 달성군에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귀화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고가 진취적이고 우리 문화에 대단히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못살고 힘들었던 60~70년대에 서독과 중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던 선배들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들도 좀 더 나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낯선 미지의 나라로 귀화한 것이다.

이렇게 귀한 사회적 자산을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여 인적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진취적 사고의 소유자들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으로 받아들이으로써 문화의 폭을 넓히고, 좀 더 넓은 사고를 공유하여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시설

위기의 지역 건설경기 두고만 볼 건가

광주·전남지역 건설 붐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0년 반토막 난 지역 건설수주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설협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일반건설업체의 지난해 공사 수주액은 총 7조8631억 원(광주 8415억 원, 전남 7조216억 원)에 불과했다. 광주의 경우 2009년 1조8088억 원에서 2010년 9233억 원으로 수주액이 반토막(48.9%)난 뒤 지난해 또다시 8.9% 감소했다.

사정은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주액이 7조216억 원으로 2009년 8조6815억 원보다 무려 1조6599억 원(19%) 줄었다.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미 5~6년 전부터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둔물까지 막혀 중견건설업체가 잇달아 도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는 올해 수주액이 더 줄어들 것이

라는데 있다. 4대강 사업 완료로 공공토목투자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투자도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공공사업 비중이 큰 지역 건설업체는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지역경제도 건설업의 불황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지방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민착형 산업으로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고용효과가 그만큼 크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생활이 팍팍해지는 것도 지방건설경기의 불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위주 정책을 펴고 있으며, 지방건설경기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공공공사 발주 확대,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체제 강화, 대형공사 분리발주 등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건설의 활로가 뚫릴 수 있는 것이다.

10대가 보험금 노려 부모 살해 사주하다니

지난 24일 밤 10시경 고교 1학년 학생인 이모(15)군이 목포시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던 김모(58)씨와 김씨의 부인 박모(52)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김씨에게 붙잡혔다.

이 군은 선배인 김모(19)군이 부모를 살해하는 조건으로 1명당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부모 살해를 사주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15살밖에 안된 고교생이 돈에 눈이 멀어 청부살인을 벌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 군은 경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학대한 부모에 대해 살해 충동을 느꼈고, 보험회사에 10여 개의 상해 및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어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군이 아버지에게 불합자자 강도로 위장신고하는 등의 대답마저 보였다고 한다.

다행히 김 군의 아버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어머니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하나 부모로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0대 청소년들이 인륜을 거스른 패륜범죄마저 스텝 없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10대들의 패륜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매년 증가추세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06년 40건을 넘어선 뒤 2009년 47건, 2010년 51 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반인륜적인 범행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가정 내의 무관심과 경망만을 부추기는 성공지상주의 등이 주된 요인이다. 또 사회적인 물질만능주의와 윤리의식 실종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학교의 인성 및 윤리교육 강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사회적으로도 물질 우선과 경쟁의식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생명의 존엄성 환기가 절실하다.

無等鼓

중국 고전인 열자(列子)의 주목왕편(周穆王篇)에는 ‘윤씨의 꿈’이라는 일화

가 나온다.

옛날 주나라에 윤씨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하인들은 온 종일 혹사당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지극한 한 명은 밤마다 꿈속에서 왕이 되어 나라를 지배하고 궁전에서 사치를 즐겼다. 누군가 그에게 일이 힘들었다며 위로하자

“우리가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다면 우리는 그 꿈을 현실세계와 똑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즉 한 수공업자가 밤마다 열두 시간씩 꿈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다면, 매일 꿈속에서 열두 시간씩 수공업자가 되는 왕만큼 행복할 것이다. ... 그러나 꿈 속의 형상은 늘 변화기에 꿈에서 본 것은 깨어난 후로는

꿈과 현실



것은 깨어난 후로는 것보다 덜 현실적이다. 현실에서는 삶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지만 꿈속에서는 그렇게 지속적이고 현실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은 약간 덜 불안정한 꿈일 뿐이다.”

어려운 현실에 허덕이던 꿈에서나마 왕이 되어 기쁘고 풍동으로 매를 맞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윤씨가 친 구에게 상의하자 “꿈속에서 남의 하인이 되는 것은 인생의 고(苦)와 락(樂)이 서로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으로, 자연의 섭리”라는 조언을 듣는다.

그러나 깨어난 후에도 삶은 늘 변화기에 꿈에서 본 것은 깨어난 후로는 것보다 덜 현실적이다. 현실에서는 삶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지만 꿈속에서는 그렇게 지속적이고 현실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은 약간 덜 불안정한 꿈일 뿐이다.”

어려운 현실에 허덕이던 꿈에서나마 왕이 되어 기쁘고 풍동으로 매를 맞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윤씨가 친 구에게 상의하자 “꿈속에서 남의 하인이 되는 것은 인생의 고(苦)와 락(樂)이 서로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으로, 자연의 섭리”라는 조언을 듣는다.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지만, 1670년 출간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명사록

〈홍성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다사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입쌀 국내산 둔갑 판매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야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우리 식당은 전남 무안에서 재배한 쌀을 식당 사장이 직영으로 계약해서 사다가 밥을 지어낸다. 돌솥구이처럼 밥을 개인별로 지어서 내는 방식이라 밥맛이 좋고 손발도 많이 찾는다. 쌀을 그곳에서 사다가 밥을 짓는 것은 다

광고전단지만 눈에 띄었다. 내용인즉 중국에서 수입한 찰쌀과 미국의 칼로스 쌀이 우리나라 쌀보다 값이 절반도 안되게 훨씬 싸니까 그것을 사다 쓰면 마진이 많이 남을 거라는 선전문구였다. 우리 식당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그 선전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내심으로는 무척 불쾌했다. 쌀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찰쌀과 미국의 칼로스 쌀을 가져다다 식사용으로 팔고, 식당에서 찾는다는 손발들에게 국내 쌀이라고 직

접히 속여서 파는 게 뻔하다. 그 많은 수입쌀은 모두가 어디로 갔을까. 결국 수입쌀은 어느 업자든 그것을 속여, 밥이든 떡이든, 혹은 김밥이나 막걸리를 빚거나 허여튼 어디엔가 섞여 들어가지만 모두 다 그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수입쌀을 국내 쌀로 속여서 팔지 못하게 강력히 단속해주시기 바란다. ▲이학식·광주시 광산구 양산동